

도의회-교육청 손발 '착착'

최영규 도의원 발의
'교육재난지원 조례'
학생도서관 지원
추경 반영으로 이어져



교육청이 과감한 추경예산안을 마련한 데에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원이 발의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도청과 교육청이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부자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인데, 이번 교육청의 학생도서관 지원 사업은 예외라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법규에 대해 과감한 재정투자로 화답해준 교육청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는 9월1일 개최하는 전북도의회 제384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전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총 사업비 약 107억 원(106억9천4,800원) 규모의 '학생도서관 지원사업'이 반영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생 21만3,89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을 도서관구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상 교육청 버전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각급 학교 학생들의 도서관구입비 지원이 결국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떨려 있다는 평가다
관건은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자치법규상 근거였다.
마침 최영규 의원이 발의해 올 7월 9일자로 시행되기 시작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가 있었다
해당 조례는 '교육재난'을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능해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교육적 피해라고 규정하고, 교육재난 발생시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최영규 의원은 "도의

이올러 최 의원은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의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경주해 나가고, 교육청과의 소통도 강화해 학생의정의 전범을 보이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도서관구입비는 오는 9월 10일(금)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집행될 예정이며, 지급받은 학생은 지역서점에서만 도서관구입을 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여건에 높은 지역서점도 승용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상 기자

'더 큰 익산, 더 큰 전북'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 민주당 입당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 본격 홍보 나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공식 선언하고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정책 재창출과 지역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 소감을 밝혔다.

최 전 차관은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정책 재창출과 지역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 소감을 밝혔다.

최정호 전 차관은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설렘과 가슴 벅참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 개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교통정책은 그 어느 분야보다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국가 경제활동에 필수 불가분하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저의 경험과 노하우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과감하고 혁신적이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차관은 또, "지금 익산은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더딘 산업발전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해 우리의 미래인 청년이 취업하기 위해 떠나고 있다"며 "청년들이 각자의 일자리를 찾아 미래의 비전을 찾는 도시로, 어린이와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넘치는 도시로, 모두가 잘 사는 경제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정호 전 차관은 '익산에는 의료를 겸하고 있는 원광대학교와 KTX역, 기존산업과 함께 작지만 미래 산업이 꿈틀대고 있고, 도시와 농촌 그리고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의 자원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며 "이런 훌륭한 자원을 토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으로 경제 지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발전과 익산발전이라는 긴 여정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민주당 대선후보, 전북이 결정"

안호영 의원, 도민들에
정세균 후보 지지 호소
'전북 결정론' 강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30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당 대선후보 지역경선 관련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이 31일부터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역순회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전북도민의 정세균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정세균 후보의 미래경제캠프 전북 공동본부장인 안 의원은 30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지역경선 관련 간담회를 갖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정세균 후보를 적극 투표해 전북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또, "31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되면 정세균 후보가 물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륜과 안정감, 리더십 등을 갖춘 정 전 총리는 중도 확장이 크기 때문에 10월 10일 개최되

는 최종 선출대회에서 반드시 선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민주당의 역대 경선을 보면 전북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전북이 밀면 대통령의 후보가 될 수 있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전북이 결정한다"는 '전북 결정론'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민주당 경선은

여론조사가 아닌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본선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면서 "도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정세균 후보를 키워준 전북도민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와 압도적인 응원으로 전북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자"고 거듭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가사 스트레스 해소 위한 사업 지원 근거 마련

홍성임 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이 '전라북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84회 임시회에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안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해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가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코로나19 이후 가정

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고, 학생들의 등교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또한 일·가정 양립과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 지속가능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가정의 돌봄과 관련한 사회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됐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행감 도민제안창구 운영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오는 11월(제386회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한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도민제안 창구의 제안내용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도민 불편사항 등으로 이는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안하는 내용 등은 제안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안방법은 전북도의회 홈페이지(www.assem.jonbuk.kr) 내 열린의회 게시판에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 또는 이메일(wjwoc@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송지용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은 도의원 뿐만 아니라,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선관위 "건강한 지구 위해 현수막 홍보활동 폐지"

전북선관위(위원장 김기현)는 환경문제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표적 홍보 수단인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일반적인 정책

홍보 현수막(16종) 게시를 올 하반기부터 중단한다.
다만 투표소 안내 등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꼭 필요한 현수막은 계속 유지한다.
이올러 현수막 홍보 중단으로 정보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 재활용 가능한 인쇄물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